

# 청년 농·어업인, 유통·가공 접목해 평균 3900만원 더 번다

### 전남연구원, 전남 농어업 현황 분석...농어촌인구 비율 57% 전국 1위 외국인 종사자 1만6000명 넘어서...전남형 지원프로그램 강화해야

청년 농가의 평균소득이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 대비 약 3500만원, 청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전체 어가의 평균소득 대비 약 3900만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존 1차 산업 중심에서 유통·가공·서비스 등 2·3차 산업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또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농어업 종사자가 1만618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연구원이 29일 'JNI 인포그래픽'을 통해 농어촌 인구 및 귀농·귀촌,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4년 6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데이터

에 따르면, 전국 농어촌인구는 약 94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했고, 전남은 179만명 인구 중 약 102만명이 농어촌(읍·면)에 거주하고 있어, 농어촌인구 비율이 5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고령화율은 전국 대비 농어촌이 5.2%p, 도시가 0.6%p 각각 높았고,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33.0%로, 도시 지역의 18.2%보다 14.8%p 높았다. '농림어업종조사'의 청년 농·어업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의 청년 농·어업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청년 어업인의 경우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청년 농가의 평균소득(8100만원)은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4600만원) 대비 약 3500만원이, 청년 어가의 평균소득(9200만원)은 전체 어가의 평균소득(5300만원) 대비 약 3900만원이 높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중 농업과 어업 종사자는 모두 1만6184명이었으며, 그중 어업이 9432명(58.3%)으로 농업(6752명, 41.7%)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남은 농촌 특화지구와 연계해 농촌 경관·환경을 꾸준히 보전·관리하고, 스마트 농·축·수산업 육성과 함께 귀농·귀어인의 진입·성장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 등 전남형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며 "귀농·귀어·귀촌인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과 외국인 숙소를 공급하고 생활서비스에 대한 편리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쌀값 하락·소비 감소 해외 수출로 돌파

### 전남도·농협 전남본부, 올해 1000t 수출 목표...마케팅 총력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부가 쌀 1000t 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판로 확보에 나섰다. 갈수록 줄고 있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해외로 수요처를 찾아내려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농협과 함께 올 하반기 13개국 32개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상으로 '전남쌀 1000t 수출'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9월 3일 담양군 봉산면 농협쌀 조합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1000t 수출 결의대회 및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연다.

이날 행사는 국외 시장에서 수요처를 적극 발굴,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판로 문제를 해결해 쌀값 안정 및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와 농협은 올 하반기에만 해외로 1000t 의 쌀을 수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3년 간 농협의 전남쌀 수출량은 76 t (2021년)→149t (2022년)→117t (2023년) 등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협 연간 수출량의 10배가 넘는 규모를 올 하반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점을 감안하면 끝없이 떨어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출에 총력을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압박한 쌀 시장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냐는 농업인들의 푸념도 들린다.

전남도도 전남산 쌀을 수출하는 생산자

(RPC-농협-조공 법인 등)를 대상으로 쌀 1kg 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출용 포장재 및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상설 판매장의 현지 운영인 수입업체에게는 전남 쌀을 수입할 경우 쌀 1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의 판촉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부는 이미 국내 쌀 수요가 해마다 급감하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뿐 아니라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가공산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능성·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형태로 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산지 쌀 한 가마(80kg)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7만 6628원으로, 지난 15일 가격(17만 7440원)보다 1112원(0.6%) 떨어졌다.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무려 7.5%(1만 4394원)나 떨어졌다. 20kg 짜리로는 4만 4157원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90년 처음으로 110kg대에 접어들어 1998년에는 99.2kg을 기록하며 두자릿수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국민 한 명이 먹는 하루 쌀 소비량도 즉석밥(210g) 한 개에도 못 미치는 평균 154.6g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한 상황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석 교통 혼잡 미리 예방" 29일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한창인 남구 대남대로의 복공판을 걷어내고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시, 추석 앞두고 시민 생활·안전 챙긴다

### 9월 2~10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도시철도 건설현장·예초기 안전점검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 안전점검과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시민 생활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차량기지 및 본선 6개 공구 등 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안전관리실과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방범 등 안전 위험요소 및

제 관리 상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 시설을 정비 상태, 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 대기반 편성·운영 여부, 복공 단차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시철도 건설현장 주변 차량통행과 보행 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조치 이행, 미관 저해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 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별로 비상근무반도 편성해 운영한다.

시는 또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도입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예초기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시동 불량으로 인한 작동상태 확인, 커버와 작업대 등 안전장치 점검, 예취날 상태 확인·교체 등을 점검했다. 또 예초기 안전사용 동영상과 농기계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5곳 추가 선정

### 기업당 2000만원 지원

###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도모

전남도가 올 하반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예비마을기업 설립 희망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후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1차 심사에 이어 2차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이뤄졌다.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이거나 출자자 중 30~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

심사 결과 울촌보라마을기업, 옥과사또골협동

조합, 남파랑협동조합, 사초리오토캠핑장, 여유협동조합이 신규로 지정돼 총 128개소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옥과사또골협동조합은 마을카페 조성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경력단절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2000만원의 보조금과 판로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다만 법인이 아닌 단체는 지원약정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전창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예비마을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곳의 기반 마련과 판로 및 제품 개발 등 다방면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일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나로마트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